

작가노트

유영호

shop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의문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솥이 저에게 주는 의미부터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Shop은 제가 볼 때 현대인으로서 지금, 여기(지구)에서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가장 익숙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히말라야와 같은 깊은 산속이나 무인도에 가지 않는 한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필연적으로 보게 되는 가장 흔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땐 이것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혹은 고안된 공간의 방식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물리적 심미적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저는 주목하구 있고요..... 갤러리라고 하는 방식 - 그곳이 미술이라는 특수한 상품을 취급하는 문화적인 공간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차치하고, 엄밀하게 보아서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치장된 솥의 한 형태라는 점입니다. 미술관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사회적 일탈에 관한 실험들을 행합니다. 그런 행위들 혹은 작품들이 미술관 밖에서 벌어진다면 어떤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수용이 안 되는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갤러리나 미술관 안에서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미술적인 행위들로 용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술과 제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고안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겠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발언들은 현대 미술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발언들이 여전히 유용한 미술의 질문일까?'**라는 것과 **'그것이 유용한 질문이라면 다르게 건드려지고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낼 수 가 있겠느냐'** 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현대 미술의 제도 안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 안의 문제를 제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방식으로 행할 수 있는 방식들이 어떻게 가능하며 실천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요..... 적어도 제가 알기에 수많은 작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해 왔지만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우를 보여준 예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전시라는 형태로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에서(제도화된), 전시나 발표의 형식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아직은 저도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방식을 찾지는 못했어요... 어쩌면 제가 인사동 거리에서 자판을 깔아놓고 프라이스 택을 파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제도화된 공간의 아우라를 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것이 먹히던 먹히지 않던 간에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발언들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솥이라는 공간은 저에게 상업 행위가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무형의 정치적, 문화적 공간들처럼 보입니다..

뮤지엄 숍에서 박스를 파는 의미를 물어 보셨는데 사실 그 박스에 써 있는 단어들 (wonder, beauty, very, nice, good)-다른 단어들도 가능하겠지만-은 추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나날이 겪고 있는 소비행위, 취향과 기호, 선택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상품을 사더라도 추상적인 이미지를 구입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요. 사실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보는 행위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식적으로 설명하자면 숍=뮤지엄, 박스=작품, 이미지 혹은 상품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것을 사게 만듦으로 서 미술관에 온 관객이 소비자가 되는 상황을 만들고 무엇을 소비하는지를 묻는 것이지요.... 이런 일련의 프로젝트는 결국 우리가 기대고 있는 미술 내적이던 외적이던 제도화된 공간이나 의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이고요. 사실 이번에 시작한 더 버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건드려 볼 수 있는 작업들을 여러 작가들과 협력해서 해보려 해요. 쉽지는 않습니 다만 지적하신 대로 숍을 미술관 안에 고정시켜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제도화된 공간에 대한 저희들의 이미지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프로젝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버스를 시작으로 이제는 보다 다양한 공간을 찾아 적극적인 의미들을 발굴해내고 싶어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작가는 다른 의미에서는 소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르네상스 형 인간 혹은 슈퍼맨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이미지는 머리 속에 있는 것들이지요. 가끔 작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이런 전문가와 일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점들이 생기죠. 제가 브랜드 매니저가 된다는 의미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갤러리스트와 같이 작가의 이미지와 히스토리를 만드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잘 팔아야 하는 것 처럼... 하지만 저에게는 작가라는 의미, 인간형이나 개인, 그리고 추상적인 의미에서조차 그 개념이 모호한 직업(?) 혹은 삶의 방식과 형태에 대한 질문의 의미가 큼니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이윤창출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수 많은 브랜드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그로 인해 일자리와 돈이 만들어지는 엄청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만요. 만약 작가가 어떤 브랜드를 만든다면, 그리고 그것이 갤러리나 뮤지엄에서 만들고 보완하는 작가의 이미지와 히스토리가 아닌 마치 구멍가게 아저씨가 가게 간판을 고민하고 만드는 행위라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미술가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실 궁금해요. 그리고 미술가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아이디어들이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응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의 의미도 있습니다. 작업실의 작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팔리는 유명작가도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작가들의 에너지를 이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봐주고 수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죠.

이점은 매우 중요한 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더 정당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돈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는 작가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일 프래닛이 생겨난 것이고요. 그렇게 이름과 형식,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작가로서의 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이 아니지만 조금 더

날이 선 작업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일들인 것 같아요. 물론 기존의 건축가나 디자이너들 그리고 미술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선택을 하고 그거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좀더 강력한 형태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죠.

관객에게 있어 작가의 위치와 자세는... 제 입장으로 설명하는 수 밖에는 없는데요. 아직까지 저는 무엇을 발언하고 제시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밥상을 차려 냈으니 어서 와서 드시오. 어쩌면 미술가가 교육자가 되어 하는 것 인가란 회의도 들지요. 만약 입장을 바꿔 제가 관람객이 된다면-여기에서는 미술 전공자로서의 관람객이 아닌 관람객으로서 말인데요. **'관객이란 무엇인가?'는 21세기 미술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도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들입니다. 앞으로 관객의 요구가 더욱 세지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ucc, 인터넷을 통해서 수용자와 관객의 입장들이 희석되고 있잖아요? 수용자=생산자는 사실 미술의 현재 모습에선 심각한 도전이지요. 물론 피할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 속에 있으면 말이죠. 미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되니까요. 혹은 팔릴 수 있는 미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 되니까요.

사실 수용자가 창조자가 되는 세상은 현대의 미디어 이미지가 만들어낸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바뀌리라 생각해요. 그러면 미술의 지위나 의미도 바뀌게 되겠지요.

제가 보기에 현재의 많은 미술은 데코레이션이지요. 스피릿과 철학은 사실 추상적인 개념들이 되어가고 있지요. 다들 사기라고 생각하지요.

솔직하고 정당한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혹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들은? 심각히 생각해 봐야겠죠.

가끔 제가 계속 독일이나 유럽에서 작업을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불필요한 생각들이지만 지금과 같은 작업을 했을까? 더 막 나갔을까? 어쩌면 한국에 있는 저에게 더 기회가 많을 수도 있고요.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저에겐 다음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겠지요.

삶은 어디에서나 같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다만 조건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좀더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싶은 욕심은 그대로입니다.